

다산포럼

독일은 축구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

이번 브라질 월드컵 대회에서 독일 대표팀의 우승은 축구에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독일 대표팀은 개개 선수들의 체력과 기술의 뒷받침 아래 정확한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안정된 게임을 운영하는 가운데 기회만 오면 거침없는 대담성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상대를 위협하였다. 브라질과의 준결승에서 7점이라는 점수가 난 것은 의외라고 할 만하지만 정작 득점 장면을 보면 하나도 특이한 것이 없다. 정상적인 플레이의 힘일까, 적절한 패스에 이은 슛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

머지 시원시원할 정도였다. 축구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눈에도 독일 대표팀은 재주를 피우지도 요령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각자가 할 일을 수행하는 성숙한 플레이어처럼 보였다. 독일이 이번 월드컵을 위해 이민자 출신을 다수 포함한 가히 다민족팀이라고 할 만한 대표팀을 구성하였고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였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 개방성과 혁신성이 월드컵 무대에서 힘을 발휘한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축구를 비교하는 마음은 물론 쓰라리지만, 두 나라의 정치를 비교하는 마음은 더욱 더 쓰라리다. 독일은 보수과 여성 대통령이 좌우를 통합하여 연정을 펼치는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는 반면, 한국의 대통령은 화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특히 전자가 국민의 바람에 따라 자신의 소신을 바꾸어 핵발전소 폐기까지 결정할 때 비해 후자는 불통의 대명사가 된 것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국과 독일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축구보다도 더 큰 격차를 실감하며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뼈아프게 되새겨 보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대학교육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교수 부족에 운영도 엉망인 부실한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독일의 대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국가가 대주는 반듯한 대학에 다닌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스펙쌓기에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반면, 독일의 대학생들은 당당하게 대학 운영에 참여하고 교수 및 직원과 대등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한국은 대학 80% 이상이 사립이고, 그 대학을 대다수가 졸업경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그런 전근대적인 대학의 존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독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운영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

에 맡기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자원은 쥐꼬리만큼 하면서도 강압에 가까운 통제를 일삼는다. 더 열거하기도 수치스러운 정도의 열악한 구조를 그냥 두고 세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서로 경쟁하라고 교수들과 대학들을 다그치고 뒤처지는 대학이나 교수는 쫓아낸다고 위협한다. 과연 창의성이 어느 나라에서 나올까? 전폭 지원하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독일이겠는가, 쥐꼬리 지원에 통제를 능사로 하는 한국이겠는가? 우수한 고등교육 인재들은 어느 쪽에서 배출될까? 스펙 쌓고 점수 채우라,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하라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대학생이겠는가,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하고 대학 경영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독일 대학생이겠는가? 축구를 더 이상 탓하지 말라. 축구는 그 만하면 잘했다. 독일 축구에서 배워야 한다고도 말하지 말라. 독일은 축구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양동욱의 S스토리

노출 있는 옷차림 해석의 온도 차이



양동욱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전 세계 시청자의 눈이 한 곳을 향한 그곳, 독일과 아르헨티나 월드컵 결승전. 두 팀 모두 점수를 내지 못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던 후반전에 갑자기 한 남성이 경기장에 뛰어 들었다. 그는 벗은 상반신에 '타고난 장난꾸러기'라고 적고 팬티만 입은 채 경기장에 난입해 유유히 관중을 향해 손 키스를 날리더니 독일 수비수에게 손살갑이 달려가 키스를 시도했다. 이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 상황을 재빠르게 눈치챈 방송국에서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대신 브라질의 명소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황당한 상황을 모면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발가벗은 채 달리는 행동을 스트리킹(Streaking)이라고 하는데, 스트리킹은 1970년대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사회를 향한 울분을 표출할 때 알몸을 활용했던 것이 시초다. 그 이후 스트리킹은 운동경기에 등장했는데, 테니스나 골프 대

회, 야구나 축구 경기에서 관중들은 예기치 않게 알몸을 드러내며 경기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스트리커(Streaker)를 종종 구경하게 되었다. 이들이 경기장에서 노출을 감행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최적의 장소에서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벌거숭이로 태어나지만, 곧바로 옷으로 몸을 감싸게 된다.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생식기관을 노출하는 행동은 금기로 여기기 때문이다. 신체 노출과 수치심의 연결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덴동산의 아담 부부는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으나,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려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다. 인간이 신의 명령을 거역한 대가로, 몸을 노출하는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의복으로 몸을 가리고 생활하는 사회에서 생식기관을 공공장소에 노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지며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당혹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대다수 사회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성적 발달인 노출증으로 규정하며 사회규범 안에서 통제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대중에게 보란 듯이, 또 어떤 이들은 후미진 곳에서 이성을 기다렸다가 번갯불처럼 순간적으로 노출을 감행한다. 이들은 사

회규범을 어기는 행위에서 쾌감을 얻는데, 자신의 생식기관을 본 상대가 불안이나 공포를 표현할 때 쾌감은 극대화되며 우월감을 느낀다. 이러한 노출증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성의 노출 있는 옷차림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그 온도 차이가 다양하다. 사람들은 의복으로 주요 신체 부위를 가리며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에 감춰졌던 이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생식기관을 보는 것은 성적 자극으로 연결된다. 특히 남성의 성욕이 여성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남성의 노출보다 여성의 노출이 사람들을 생리적으로 더 자극한다고 규정한다. 그러한 이유로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신체 부위를 가려 지속적인 옷차림을 하는 것이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한다. 그래서 몸매를 드러내거나 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한 여성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거나 남성의 성욕을 함부로 자극하는 위험한 여성으로 여겨진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여성의 노출과 성적魅力を 연결해서, 마치 여성의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처럼 묘사하는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는 것도 이와 같은 왜곡된 접근의 일환이다. 사람들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목적 외에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의복

을 선택한다. 즉, 자신만의 매력이나 개성을 옷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는 그 사람의 자율성이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음식이 있듯이 선호하는 옷차림이 있다. 한 여성이 민소매 상의와 꼭 끼는 바지 혹은 목이 파인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었다. 그 여성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만족을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혹은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옷차림을 누군가 성적으로 접근해 주기를 원하는 몸짓으로 잘못 해석해버린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성적인 존재이며 성적 환상을 즐긴다. 의복으로 신체를 꾸미지만, 그 의복 속에 감춰진 타인의 몸을 상상하기도 하고, 노출 있는 의복을 통해 성적 자극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적 상상이나 자극은 오롯이 아니며 누군가의 성적 접근을 바라는 신호는 더욱 아니다. 하지만 남녀 모두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노출은 다른 사람에게 불안이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성이나 매력을 표현 할 필요가 있다.

社說

기초연금 예산 정부 부담률 더 늘려라

이달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첫 지급일(2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사업 예산의 16%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기 때문이다. 광주 자치구의 기초연금 재정부담률은 12%(국비 70%, 시비 18%)로 전남 시·군의 3%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각 구청은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 편성 또는 예비비 사용 등으로 급한 불을 꺼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수명이 늘면서 대상자와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를 막으려면 국비 부담률을 늘려 나가는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도 보면 급여인 기초연금의 재원을 대부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 전액 부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광주에서 또다시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4월 1주일 사이 중·고생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 3개월 만의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18)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발견 당시 숨져 있었으며 경찰은 이 아파트 10층에 사는 A양이 자신의 집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가정사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의 학생 자살은 2007년 이후 최근 7년 동안 모두 66명에 달한다. 2007년 11명, 2008년 6명, 2009년 13명, 2010년 5명, 2011년 10명, 2012년 9명, 2013년에는 7명이 목숨을 끊었다. 올해도 벌써 5명의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처럼 광주에서 학생 자살이 유독 많은 것은 전국 광역시 중 자살 가능성이 위험군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에 주

안이한 대응이 부른 잇따른 광주 학생 자살

목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여고생 2명의 동반자살을 계기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광주시도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대응에 나섰지만 학생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인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함께 교육하는 현행 방식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 자살은 부모나 학교의 과도한 기대에 따른 스트레스와 가정불화, 소외감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관심과 대화, 효과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극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 학생들의 정신건강도에 따른 예방과 대처, 사후 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 점심식사 후 즐기는 잠깐의 낮잠은 보약과도 같다. 뛰어난 예술가·정치인 등 유명인사 중에는 낮잠 예찬론자들이 많다. 천재들도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4시간마다 15분씩 낮잠을 잤다.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은 "창조적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낮잠"이라고 규정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내 활력의 근원은 낮잠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런던을 폭격할 때에도 방공호에서 오수(午睡)를 즐겼다 한다. 나폴레옹은 매일 낮잠을 자면서 전투 계획을 세웠다.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서 주인공 성인이 부귀영화의 허망함을 깨닫고 불도에 귀의한 것도 낮잠이 계기가 됐다. 임청남 진리가 낮잠을 통해 발견되기도 한다. 아이작 뉴턴은 나무그늘 아래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다가 머리위로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낮잠이 아예 오랜 풍습으로 자리잡

無等鼓

는 나라들도 많다. 스페인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스페인어권 국가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시에스타'라고 해서 점심 후 2~3시간씩 공식적으로 낮잠을 즐긴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와 벵골만 서쪽 지역에서는 점심 후의 졸음을 '밥잠'이라고 부른다. 15분 이내의 낮잠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보약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바이올리들을 깨뜨리는 독이 된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낮잠을 길게 자지 않기 위해 바다에 금속접시를 놓고 팔걸이 의자에서 스펀을 쥔 채 잠든다고 했다.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 스펀이 접시위에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깨어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8월부터 낮잠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부서장에 신고하고 최대 1시간까지 낮잠을 자는 대신 그만큼 초과근무를 하면 된다고 한다. 찬반 논란이 있지만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낮잠이 아예 오랜 풍습으로 자리잡

낮잠 정책

야 한다. 넷째, 소통과 배려의 교육행정을 실천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낙선자의 공약도 과감하게 반영하는 전략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사당쟁을 실행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던가? 직선제의 가장 큰 폐단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보은인사다. 특혜나 심사조작 등 비교육적인 인사는 절대 안된다. '코드인사'나 '내 사람 실기' 등의 말쑥 많은 인사는 우리 교육의 희망을 잃게 되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수장으로서 당선되는 순간부터 '모두의 교육감'인 것이다. 진영논리를 벗어나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다짐할 때만이 깊은 상처로 얼룩진 교육현장에 새살이 돋게 될 것이라 믿는다.

재선에 성공한 광주·전남 교육감에게 바란다

기고



이동범
전 광주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제2기 민선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사·도민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먼저, 제2기 출범과 함께 어떠한 각오로 취임을 하였는지가 궁금하며 지지를 받지 못한 사·도민과 학부모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지난 4년간 제임시 추진했던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얼마나 반성하고 재고하였는지 묻고 싶다.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보인 비교육적인 사항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4년의 임기동안 승자독식의 진영논

리에서 벗어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의 교육가족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열린 마음부터 갖춰가야 하며 반성 및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공약상 필요에 의해 남발된 포퓰리즘 공약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4년 임기 내에 모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무엇이 진정한 학생을 위한 사업인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연수예산, 사회적 약자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진보와 보수를 공유할 가치부터

찾아야 한다.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세칭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고 있는 실정이나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느 성향의 교육감이든 관계없이 꼬이고 얽힌 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을 초월해 학생들을 위한 참된 교육과 인간교육을 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협의체'의 구성 등 과감한 교육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이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사상 확립과 함께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기본에 충실한 균형있는 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한다. 근대사회와는 달리 21세기의 포스트모던 사회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배척하고 대화와 설득, 양보와 배려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넷째, 소통과 배려의 교육행정을 실천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낙선자의 공약도 과감하게 반영하는 전략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사당쟁을 실행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던가? 직선제의 가장 큰 폐단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보은인사다. 특혜나 심사조작 등 비교육적인 인사는 절대 안된다. '코드인사'나 '내 사람 실기' 등의 말쑥 많은 인사는 우리 교육의 희망을 잃게 되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수장으로서 당선되는 순간부터 '모두의 교육감'인 것이다. 진영논리를 벗어나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다짐할 때만이 깊은 상처로 얼룩진 교육현장에 새살이 돋게 될 것이라 믿는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